

π -day, 어디서 즐길까?

미국이나 영국처럼 기념일이나 큰 행사로 자리 잡진 않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곳곳에서 파이의 날 행사가 열리고 있어. 일부 학교에서는 꾸준히 파이의 날을 즐기고 있지. 2, 3년 전부터는 사설 기관이나 연구소에서 파이의 날 행사를 시작했어.



포스텍 마르쿠스

포스텍 수학 동아리인 마르쿠스에서는 2001년 3월 14일부터 매년 파이의 날을 기념하며 행사를 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처음 파이의 날을 기념했다고 할 수 있지. 파이의 날은 1년에 한 번 열리는 동아리 행사야. 현재 포스텍의 파이의 날은 3월 14일이 아니고 1년 중 314번째 날인 11월 10일이지.

포스텍 파이의 날에 가장 주목을 받았던 행사는 원주율 외우기 대회였어. 매년 대회마다 1등을 했던 포스텍 산업공학과 전여운 학생이 유명해. 전여운 학생은 평소에도 거리의 자동차 번호판을 보며 셈을 해 보는 등 숫자로 장난치는 것을 좋아했대. 스스로도 숫자 감각이 뛰어나다고 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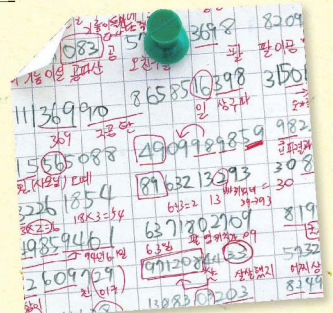
꼈어. 1회 때에는 200자리, 2회 때는 400자리, 3

회 때는 800자리를 외웠고, 2007년에는 한 방송프로그램에 나가 3500자리를 외워 국내 최고 기록을 갖고 있니까. 전여운씨가 1등을 독차지하는 바람에 이 대회는 지금 없어졌어.

현재 파이의 날에는 1110g 소지품 달기 대회를 열어 선물로 각종 파이를 선물한대. 포스텍 파이의 날은 학교 행사지만 누구나 와서 즐길 수 있어.



2009년 마르쿠스 수학 동아리 회원. 포스텍의 파이의 날 행사를 이끌고 있다.



전여운씨 노트의 일부다. '5679' 숫자 밑에 '오록도 친구'라고 적으며 이야기를 만들어 원주율을 외웠다.

광신고등학교

" π -1 데이, 재미있잖아요!"

광신고등학교에선 2002년 2월 14일 졸업식을 앞두고 파이의 날이 탄생했어. 그 날 김홍규 선생님은 1년 동안 가르쳤던 고3 학생들에게 초코바를 선물하면서 재미삼아 '오늘은 π -1의 날'이라고 말씀하셨대. 이렇게 말한 게 다른 반에도 소문이 났는데, 학생들의 반응이 좋았어. 즐거워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선생님도 조금은 의외였다고 해. 그래서 모두가 즐거



연합뉴스 김동진



고등과학원

고등과학원 '파이의 날' 행사에는 '파이
짧은 글짓기' 대회가 열린다. 원주율의
숫자에 운율을 맞춰 글을 짓는다.

숫자에 한글을 맞춰 글을 짓는다.

3	오	늘	은					
1	이							
4	무	리	스	미				
1	크							
6	생	알	잔	리	에	르		

고향의 봄

Xnote

2010년 1월 프랑스의 프로그래머 패브리스 벨라드는 2조 7000억 자리까지 파이값을 계산했다. 슈퍼컴퓨터가 아닌 일반 컴퓨터로 이 값을 계산하는 데 131일이나 걸렸다.

파이값 외우기 기네스 기록은 중국의 24세 대학생생 루 차오가 갖고 있다. 총 24시간 4분 동안 6만 7890자리까지 외웠다. 2006년엔 63세의 일본인 유키라 히라구치가 10만 자리를 외웠다고 주장했다만 세계 기록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